



환경공단-WBG, 국제 환경문제 대응한다

한국환경공단이 세계은행그룹(WBG)과 협약을 맺고, 국제 환경문제에 대해 함께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을 밝혔다. 양측은 순환경제, 대기, 수질, 토양 등의 분야에서 교류를 늘려 갈 계획이다. 차광명 한국환경공단 경영기획이사(오른쪽)와 발레리 히키 세계은행 환경국장이 '글로벌 환경협력 확대'에 관한 협력의향서에 서명한 뒤 대화하고 있다. /환경공단



웅진씽크빅, '청소년 도박 근절 캠페인' 펼쳐

윤승현 웅진씽크빅 대표(가운데)가 서울경찰청이 주관하는 '청소년 불법도박 근절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윤 대표는 고광범 볼트테크코리아 대표의 지목을 받아 이번 캠페인에 참여했다.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요즘 세대 아이들이 불법 사이버도박의 피해를 보기 전에 선제적으로 근절해야 한다는 데 공감해 동참을 결정했다. /웅진씽크빅



대동·대동모빌리티,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본상

대동과 대동모빌리티가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 중 하나로 꼽히는 독일 '2026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Red Dot Design Award)' 콘셉트 디자인 부문에서 각각 본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작은 대동의 농업용 멀티 플랫폼 로봇 'RMRP-100' (사진)과 대동모빌리티의 'DDM 모둘러 모빌리티 플랫폼'이다. /대동



하나은행-한국공인노무사회, 퇴직연금 효율화

하나은행은 지난 15일 한국공인노무사회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사업장의 퇴직연금 제도 도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조영준 하나은행 퇴직연금그룹 부회장(오른쪽)이 이완영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하나은행



카카오뱅크-몽골중앙은행, 디지털 금융 협력 논의

카카오뱅크는 지난 15일 몽골 중앙은행 총재 및 몽골 최대 기업 MCS그룹 관계자들과 만나 몽골 디지털 금융 혁신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16일 밝혔다. 나락축트 산자(Narantsogt Sanjaa) 몽골 중앙은행 총재가 한국을 방문해 카카오뱅크와 미팅을 가졌으며,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오른쪽)와 MCS그룹 관계자들이 참석해 디지털 금융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카카오뱅크

롯데웰푸드, '돼지바 빵집' 방문객 1만2000명 돌파

(오픈 열흘 만에)

21일까지 서울 샤로수길서 팝업 방문객 73% 커스텀 체험 참여 신제품 '돼지바빵' 540만개 판매

롯데웰푸드의 '돼지바' 팝업스토어가 오픈 열흘 만에 누적 방문객 1만 2000명을 돌파하며 흥행몰이에 성공했다. 체험형 콘텐츠와 SNS 인증 문화를 결합한 마케팅이 젊은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으면서 신제품 '돼지바빵' 판매에도 힘을 보태고 있다.

롯데웰푸드는 서울 관악구 샤로수길 인근에서 운영 중인 '돼지바빵집 since 1983'가 하루 평균 1000명 이상의 방문객을 모으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주말에는 이틀간 약 3000명이 다녀갔



롯데웰푸드 '돼지바 빵집 since 1983' 팝업스토어에 입장하기 위해 대기줄이 형성된 모습. /롯데웰푸드

며 팝업은 오는 21일까지 운영된다. 행사장에서는 '커스텀 돼지바빵 만들기'와 '밤티 돼지바빵 꾸미기 콘테스트' 등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 중

다. 방문객의 약 73%가 커스텀 체험에 참여했고, 온·오프라인 콘테스트에도 약 3000명이 참여하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신제품 '돼지바빵'도 출시 두 달 만에 약 540만개가 판매됐다. 롯데웰푸드는 1983년 출시된 장수 브랜드 '돼지바'의 친숙함과 다양한 세대가 찾는 샤로수길 상권을 결합한 전략이 흥행을 이끈 것으로 보고 있다.

롯데웰푸드 관계자는 "이번 팝업스토어는 자신만의 개성을 담아 꾸미고 SNS에 공유하는 MZ세대의 놀이 문화와 맞물리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브랜드를 직접 경험하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참여형 마케팅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metro

두산연강재단, 과학·수학교사 학술시찰

창원 산업현장부터 日 방문

두산연강재단이 과학·수학교사의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국내외 현장 시찰을 진행한다.

두산연강재단은 초·중·고 과학교사와 수학교사를 대상으로 국내외 과학 관련 산업 현장과 교육 현장을 탐방하는 '제20회 과학교사 학술시찰'을 15일부터 22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시찰에는 '올해의 과학교사상' 수상자 25명과 '대한민국 수학교육상' 수상자 7명 등 총 32명이 참가한다. 참가자들은 7박 8일 동안 경남 창원

의 산업 현장을 시작으로 일본 오사카, 나고야, 도쿄의 과학관과 기업체, 고등학교 등을 방문한다. 이를 통해 과학기술 산업 현장과 해외 교육 사례를 살펴보고 수업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교육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두산연강재단은 2007년부터 '올해의 과학교사상' 수상 교사를 대상으로 과학교사 학술시찰을 운영해 왔다. 2025년부터는 '대한민국 수학교육상' 수상자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올해로 20회를 맞은 과학교사 학술시찰에는 지금까지 총 698명의 교사가 참가했다. /원관희 기자 wkh@



장영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왼쪽에서 일곱 번째)이 16일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열린 '제3회 은행나무포럼'에서 나성화 산업통상부 무역정책관, 김진홍 금융위원회 국장, 9개 특별출연 은행 임원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무보

무보, 중소·중견기업 수출확대 민관협력

'제3회 은행나무포럼' 열여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가 주요 시중은행 및 정부 부처와 손잡고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한 민관협력 강화에 속도를 낸다.

무보는 16일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제3회 은행나무포럼을 개최하고 9개 무역보험 기금 출연 은행과 산업통상부, 금융위원회와 중소·중견기업 수출 지원 확대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은행나무포럼(은행과 함께 나누는 무역보험)'은 정부와 은행 간의 공동협의체로, 지난해 5월 출범한 이후 밀도 높은 협의를 이어왔다. 생산적 금융 활

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창구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이번 포럼에서는 은행과 대기업의 출연금에 무보 보증의 레버리지 구조를 결합한 '상생 무역금융(SMILE, Supply-chain Miracle by Leverage)'의 성과와 개선 방안이 집중적으로 공유됐다. 이 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면서 대·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의 기반이 더욱 공고해졌다는 분석이다.

향후에는 지원의 범위를 지역 경제로까지 넓힐 계획이다. 무보는 지자체 출연을 기반으로 한 '지역 수출기업 대상 우대금융 사업'을 신설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본격적으로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오뚜기, '함태호홀'에 경영철학·역사 담아

안양공장 내 조성... 개관식 열여

오뚜기가 창업자의 경영 철학과 반세기 넘는 기업 역사를 한 공간에 담은 헤리티지 시설을 선보였다. 창업 당시 생산기지를 리모델링해 기업의 정체성과 식문화를 함께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시키며 브랜드 유산(헤리티지) 강화에 나섰다.

오뚜기는 전남 경기도 안양시 오뚜기 안양공장 내에 조성한 '함태호홀' 개관식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함영준 회장과 황성만 사장을 비롯해 전·현직 임직원 200여 명이 참석했다.

함태호홀은 오뚜기 창업자인 고(故) 함태호 명예회장의 생애와 경영철학을 기리고, 오뚜기의 역사와 브랜드 자산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된 복합 헤리티지 공간이다. 1972년 준공돼 2009년까지 분말카레와 스프를 생산했던 안양1공장의 기존 골조를 활용해 조성했으며, 과거 공장의 구조와 흔적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새로운 기능을 더했다.

연면적 8700㎡ 규모의 함태호홀은 지하 2층~지상 5층으로 구성됐다. 2023년 9월부터 구조검토와 철거, 증축 공사를 순차적으로 진행해 완공했다.

외관은 옛 공장의 삼각 지붕 형태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했으며, 오뚜기의 상징색인 '오뚜기 옐로우'를 적용한 매쉬 패널로 기업의 역사와 정체성을 표현했다. /신원선 기자



오뚜기가 안양공장 내에 함태호홀을 열었다. /오뚜기

내부는 창업자의 생애와 경영철학, 오뚜기의 성장 과정, 제품 변천사와 식문화 콘텐츠를 한 흐름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꾸며졌다. 1층에는 오뚜기 제품을 판매하는 '오피트'와 오뚜기 제품을 활용한 메뉴를 맛볼 수 있는 '롤리폴리 함태호홀점'이 들어섰고, 2층에는 라운지와 컨퍼런스룸, 식문화원이 마련됐다.

특히 2층 라운지에는 1975년 안양1공장 증축 당시 세워진 기둥 11개를 원형 보존해 과거 생산시설의 흔적과 기업 성장의 역사를 함께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식문화원에는 국내외 식품 관련 전문서적 약 1만 8500권이 비치됐다. 오뚜기는 이를 건강한 식문화 확산을 위한 지식 공유 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3~5층에 조성된 '함태호 아카이브'에서는 창업자의 삶과 경영철학을 중심으로 오뚜기의 제품과 브랜드, 식문화 콘텐츠를 전시·체험 형식으로 만나볼 수 있다. 오뚜기는 이를 통해 창업자가 강조했던 품질과 신뢰, 식생활 향상의 가치가 현재의 브랜드와 소비자 식탁으로 이어져 온 과정을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신원선 기자

중진공-전기안전공, 감사 전문성 제고

감사전문성 강화, 청렴문화 확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한국전기안전공사와 감사 전문성 제고에 나선다.

중진공은 전기안전공사와 전북 완주군 전기안전공사 본부에서 감사 전문성 강화 및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감사협력 체계 구축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의 전국 단위 조직을 활용해 현장 중심의 감사노하우와 제도·시스템 개선 경험을 나누면서 자체

감사기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반부패·청렴 가치를 확산시키기 위해 추진됐다.

중진공과 전기안전공사는 전문 분야에서 교차·합동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 인력을 상호 교류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 및 디지털 기반 감사 기법을 공유하고 자문 체계도 마련한다.

또 내부통제시스템 개선 및 반부패·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협력을 진행한다. 임직원 이해충돌방지, 감사성과관리 등도 협업해 감사 품질을 높일 계획이다. /김승호 기자 bada@

인사 ◆충북도교육청 ◇3급 승진 △교육도서관 황경식 ◇4급 승진 노사정책과장 권사혁 △단체교육연수원 교육행정연수부장 김정기 △교육도서관 학교도서관지원부장 정선옥 △국제교육원 총무부장 박대규 △교육연구정보원 총무부장 유재명 △교육시설과장 김광오 ◇4급 전보 △재정복지과장 하재숙 △자연과학교육원 총무부장 안치동 △

해양교육원장 최희희 △청주교육지원청 행정국장 김용성

◆일요주간 △주필 이재훈

부음 ▲강희자씨 별세, 김종율(롯데메이칼 대산공장 총무담당 수석)씨 모친상 = 16일 오전, 충남 서산시 수석동 서산중앙병원 장례식장 특실, 발인 18일 오전. 041-669-1414